

융복합시대 우리나라 지방대학생의 경제적·일상적 좌절에 관한 연구 -지방대학생 & 서울소재 대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유지영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tudy on the Money-relating Frustration among Local College Students in Convergence Era: Comparison between Local College Students and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Jiyoung Yo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 약 청년 및 대학생의 현실과 미래는 고실업, 저취업,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져 그들의 삶은 불안하며 위태롭다. 특히 지방대학생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문제 외에도 지방대학생으로써 좌절과 차별을 동시에 경험한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들의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서울소재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상적 좌절에 관한 문항을 항목화한 후, 지방대학생 약 400명, 서울소재 대학생 약 25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두 집단의 응답의 결과를 카이제곱법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더 심하게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청년수당 정책이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좌절을 해결하기 위한 빠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지방대학생, 좌절, 대학생, 청년수당, 청년배당, 융복합 시대

Abstract Local college students are differentiated from Seoul-located university students and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money-relating daily frustration among local university students compared to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For survey, twenty items were constructed in order to figure out daily frustration. About 400 local-college students and about 250 students were interviewed for the survey. As a result of Chi-square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local colleg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confront money-relating frustration, compared to the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Youth allowance can be suggested for local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ir confronting frustration, especially toward the convergence era.

Key Words : local college students, money-relating frustration, youth allowance, convergence era

Received 16 November 2015, Revised 29 Dec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Yoo(Namseoul University)
Email: jiyoungyoo@ns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방대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누구나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려는 의지는 지방대학에 대한 기피를 담고 있다.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지방대학은 본래는 국가가 정해놓은 분류기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방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대학 중 위치가 지방인(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등을 포함하며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를 포함한다[1]. 지방대학은 2004년 기준으로 전국에 209개가 있으며 전국 대학의 63.5%에 달하고, 학생수는 약 168만명으로 전국대학생의 61.4%에 이른다[2]. 양적으로 본다면 지방대학이 더 우위에 있다. 그러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그 지방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지역 우수 지방대학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수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은 위치상 지방에 위치한 대학이라는 중립적 의미가 아니라 서울중심주의, 성적지상주의, 대학간 서열구조를 담는 차별과 배제의 용어가 되어 버렸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문이나 지식을 탐구하는 엘리트나 지성인으로 인정되기 보다는 모두들 취업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어야 하는 위기의 집단이 되어 버렸다. 서울소재 명문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닌 시대적 상황에 처해있다. [3]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생은 위기라고 말하기엔 이미 강건하게 구조화된 구직과 취업이라는 치열하고 냉정한 관문이 주는 압박과 무한경쟁의 영향 속에서 상존하는 불안과 잠재하는 실업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고뇌하고 불안한 주체들이다. 청년 세대의 삶이 고달프고 불안하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가 고달프고 불안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현재 기성세대의 책임임을 느끼게 한다. 괜찮은 직장(decent job)으로의 취업과 명문대학교 진학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6년의 공부목표가 되어버렸다. 대학에 가기 위해 나름 경쟁을 겪어낸 청년세대의 다수가 대학입학과 동시에 또다시 위계화된 등급의 벽과 만나고 서열화된 직업시장 속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다시금 내몰린다[3]. 이 불행한 현실은 20대 청년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에 근본 문제가

있다. 20대를 둘러싼 과도한 스펙쌓기, 고시준비, 고실업, 저취업, 저임금, 비정규직화, 불안정한 고용, 아르바이트 생활화가 그들 삶을 불안하게 결정짓고 있다. 20대의 취업률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청년고용의 상황은 경제상태에 머무르고, 정규직으로의 직업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다수의 지표들이 보여준다[3]. 청년층 실업자의 수는 2011년 기준으로 공식 통계만 약 36만명에 이른다. 구직을 포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이들을 포함한다면 실제 청년층 및 20대-30대를 88만원세대[4], 신빈곤층[5],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오포세대(삼포 + 인간관계와 내집마련 포기), 칠포세대(오포 + 꿈과 희망을 포기), N포세대(포기하는 것이 늘어 셀 수 없는)로 부르게 된 것이 우리나라 현 모습이다.

지방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청년층이 겪는 이러한 불안과 위기에 덧붙여 지방대학생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는 문제도 동시에 겪어내야 한다. 또한 양적 팽창의 일변으로 치달았던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대학의 재정악화를 경험하면서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으며[6] 이 개혁의 바람에 서울소재 대학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지방대학들이다. 이미 지방대학은 신입생 급감, 학교재정곤란, 졸업생의 취업을 저하를 아파게 겪고 있다. 지방대학생일수록 사회적으로 배제된 가구의 자녀일 가능성이 서울소재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특히 무한경쟁 및 신자유주의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양극화의 일로를 겪고 있으며, 이미 잘사는 집안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현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결국 삶 전반에서 배제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지방대학에 진학한 우리의 청년들은 어떤 일상에 처해 있을까.

천안 소재의 한 사립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로써 본인은, 특히 우리나라 청년 세대 특히 지방대학생의 경제적·일상적 좌절에 주목하고 학계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연유로 인한 일상적 좌절을 우연히 관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청년들, 특히 지방대학생은 더 상대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다. 그것은 이들의 넉넉지 못한 부모, 높은 교통비, 부족한 식비, 높은 등록금, 부족한 장학금, 부족한 하루 생활비에 대한 것들이며, 우리 학계에서 아

직 덜 연구된 분야이다. 이들이 겪는 이러한 일상적 좌절은 결국 '돈, 금전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제적 곤란함은 결국 많은 일상적 측면에서의 배제와 좌절을 유발한다. 기존 연구는 지방대학생에 대한 제한된 관심만을 표명했거나[6] 혹은 그들을 둘러싼 거시적인 문제들, 취업, 실업, 사회적 배제, 정체성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이 겪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 좌절의 항목들을 구성하고 지방대학생들의 응답을 받아, 서울소재 대학생의 응답과 비교해 보려 한다.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 좌절을 연구한 논문이 이제껏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 상 편의적 표집에 의해 표본을 수집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2. 기존문헌 검토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 경북지역 대학생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7]나 충청지역 대학생의 통학유형과 생활문화에 관한 연구[8], 전남지역 대학생의 취업전략에 관한 연구[9], 대구지역 대학생의 실업에 관한 연구[10] 등이 있다(이하 연구들은 [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연구는 [1,6,11]이다.

[11]의 연구는 본 연구와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면서 실업 위험이 높은 지방대학생의 근로경험을 분석한 연구이다. 그의 연구는 전북지역 K대학교의 대형강의 소속 학부생 260명의 응답을 받아,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그 근로경험이 어떻게 진로에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주로 아르바이트를 위주로 이루어지며, 정부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보수 및 근로기간의 제약으로 참여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재학 중 경험은 아르바이트는 진로준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직장체험은 진로준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의 연구는 특정 지역 지방대학생 중 연구자가 편의적으로 접근 가능한 학부 대형강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 응답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처럼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지만 지방대학생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학 중 근로경험 영향을 노동시장 진입 측면에서 분석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방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업 위험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그들의 근로경험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1]의 연구는 지방대학생이 서울 중심의 타자화 담론과 지방대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지 민속지학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형일은 지방대학생 연구대상자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지방대학 교수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심도깊은 대화를 통해 대상자의 의식의 다양한 차원을 드러내었다. 분석결과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사회적 지위가 다르지만 서울 중심의 타자화 담론 앞에서는 동일한 타자의 위치를 강요받으며, 의식의 차원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대신, 지방대학생인 연구대상자는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맞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의 연구는 지방대학생들 본인이 외부의 시각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스스로를 개념화하는 지를 87명의 지방대학생을 심층면접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대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지방대학생이란 자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대학생으로 자기를 규정하였지만, 대중매체, 지인간의 관계 등에서 지방대생으로 차별, 무시, 열등감 등으로 범주화되는 시각을 각성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학생들은 긍정적 정체감을 내면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개인의 실천적 노력이라는 전략을 이용한다. [6]과 [1]의 연구는 계량화가 목적인 설문지를 이용하는 본 연구와 방법론이나 연구주제면에서는 일치성이 없지만 본 연구가 지방대학생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립하고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연구는 지방대학생의 일상에 대한 작은 요소만을 담았을 뿐 그것의 항목화 및 계량화를 시도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특히 지방대학생의 일상적 삶에서 느끼는 좌절,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겪는 일상적 좌절에 관한 항목을 구성하고 분석해 보려 한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1년 11월부터 4주간에 걸쳐 충청 소재 N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편의적 표집법에 의존했는데, 연구자의 소속 대학내 몇 개의 대형강의 수강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편의적 표집이지만, 학년과 소속학과는 되도록 다양한 수업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수거된 총 40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유효한 360부의 설문지의 응답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방대학생을 비지방대학생의 특성과 비교하기 위해 연구자가 접근가능한 서울소재 K대학의 몇몇 대형강의를 대상으로 역시 학부생 약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에서 유효한 설문지는 총 243부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 양 쪽 모두 특정 지역, 특정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될 결과들은 일반화할 수 없으며, 편의적 표집으로 얻어진 자료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생의 일상적 좌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차원에서 [11]의 연구와 같이 의미있는 분석이 될 수 있음을 동시에 밝히는 바이다.

3.2 변수 구성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 좌절을 기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은 설문 문항을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지의 문항들은 지방대학생이 겪는 일상적 경제적 좌절에 대한 탐색적 성격으로, 기존 연구 및 기존 척도에 없던, 새로운 문항들을 포함시켰는데, 문항의 구성은 학생들을 직접 상담 및 면접하는 형식의 초기기초조사(pilot study)에 의존하여 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상적 좌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조사항목은 연령, 성별, 아버지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학력, 어머니 직업, 가구소득 등을 주요하게 포함시켰다.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고, 가구소득은 비율척도로 측정되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 좌절로는, 돈문제 때문에 우울증 불면증을 겪은 경험, 식사를 줄이거나 안한 경험, 휴학 자퇴를 하거

나, 일부러 군대를 간 경험 등 총 20개 문항을 설문 항목에 포함시켰다.

<Table 1> Questionnaire: frustration among local college students

Category	Items
Socio-economic	age, gender, income, father's and mother's educational attainment, father's and mother's occupation
Daily frustration (20)	1) insomnia or depression due to money problem
	2) feel restriction to meeting friends or meeting lovers due to money problem
	3) reduce to eat or not eat due to money problem
	4) always look for job due to money problem
	5) leave of absence of school or dropout of school due to money problem (siblings)
	6) go to military service due to money problem (siblings)
	7) experience family economic crisis due to IMF
	8) select my major in order to get a job after graduation
	9) feel like cannot afford to meal price at school cafeteria
	10) experience family feud because of tuition fees or living expenses
	11) expecting living (money) difficulties after graduation
	12) think of founding company after graduation (since I will not able to get a job)
	13) feel mental health problems due to money
	14) feel physical health problems due to money
	15) think that happiness is now deprived due to the preparation for getting a future job
	16) think that future of this situation is also difficult marriage and childbirth
	17) think that upgrading my class is impossible given current educational attainment or current specification of me
	18) wealth is hereditary so, I will live the level either of or under level of my parent's life
	19) think that the tuition is too high
	20) think the government is too passive for youth unemployment problem

이 문항들은, 모두 동일하게 5개의 응답범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는데, 아니다(매우 아니다와 아니다의 합), 보통,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합) 3개로 재구성한 결과를 기술통계 및 카이자승법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8718로, 대체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4. 분석 결과

4.1 지방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서울소재 대학생과의 비교

아래 <Table 2>는 설문응답을 받은 지방대학생의 일

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의 뚜렷한 차이가 먼저 가구 연평균 소득에서 나타난다. 지방대학생의 가구연평균 소득의 평균값이 약 4795만원인데 반해서, 서울소재 대학생의 경우는 7085만원으로 서울소재 대학생 가구의 소득이 약 1.5배 정도 높다. 소득의 백분위수 5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지방대학생의 경우 4천만원이고, 서울소재 대학생은 6천만원으로 나타나 역시 서울소재 대학생이 1.5배 높게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local college students: compa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near-seoul college students

		local college students	near-seoul college students
gender	male	34.2%(123)	65.4%(159)
	female	65.8%(237)	34.6%(84)
age	mean	21	22
	median	4795	7085
income (yearly) (unit: 10,000won)	median	4000	6000
	minimum	1000	1000
	maximum	50,000	10,000
	others	5.6(20)	1.7(4)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elementary	5.6(20)	1.7(4)
	middle school	6.1(22)	3.8(9)
	high school	51.0(183)	27.0(64)
	college	32.0(115)	51.5(122)
	graduate school	3.9(14)	14.8(35)
mother's educational attainment	elementary	1.4(5)	1.7(4)
	middle school	4.7(17)	1.3(3)
	high school	8.4(30)	4.6(11)
	college	65.6(235)	52.3(125)
	graduate school	18.7(67)	33.9(81)
father's occupation	others	1.4(5)	6.7(16)
	Small business	0.8(2)	0.3(1)
	CEO	19.6(68)	16.5(38)
	office worker	5.5(19)	12.6(29)
	simple labor job	18.2(63)	22.9(53)
	manager	20.5(71)	11.3(26)
	unemployed	6.6(23)	9.1(21)
mother's occupation	others	2.6(9)	3.9(9)
	Small business	13.5(47)	29.0(67)
	office worker	14.6(52)	15.4(36)
	simple labor job	8.1(29)	11.1(26)
	public work (teacher,military)	6.7(24)	3.4(8)
	housewife	2.2(8)	5.1(12)
	unemployed	33.1(118)	40.6(95)
others	2.8(10)	4.7(11)	
		30.5(106)	18.6(43)

아버지 학력에서 두 집단간에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지방대학생의 11.7%(5.6%+6.1%)가 중졸이하이고, 고

졸이 51.0%, 대졸이 32.0%, 대학원졸 이상이 3.9%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소재 대학생은 5.5%(1.7%+3.8%)가 중졸이하이고, 고졸이 27.0%, 대졸이 51.5%, 대학원졸 이상이 14.8%로 나타났다. 지방대학생 아버지의 35.9%가 대졸 및 대학원 이상인 것에 반해, 서울소재 대학생의 아버지 학력 중 대졸과 대학원졸 합하면, 66.3%로 약 30.4%만큼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 학력은 특히 대졸과 고졸을 비교하면, 두 집단의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 지방대학생의 어머니는 절반을 훨씬 넘는 66.6%가 고등학교 졸업이다. 서울소재 대학생의 어머니는 대학졸업 및 대학원졸업이 전체의 40.6%(33.9+6.7%)를 차지하며, 고졸은 52.3%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의 경우도, 지방대학생은 우선적으로 큰 비중이 생산기술직(30.5%)과 소규모자영업(19.6%)이다. 경영자나 관리자인 경우는 약 12.1%(5.5% +6.6%)에 불과하다. 서울소재 대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의 22.9%가 사무직, 경영자인 경우가 12.6%, 관리자가 9.1%, 소규모자영업이 16.5%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은 그들 대부분이 40대 이상 기혼여성들임을 감안할 때 두 집단 모두에서 전업주부인 경우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지방대학생의 어머니중 6.7%가 생산기술직이었고, 서울소재 대학생의 어머니는 3.4%가 생산기술직이었다. 교사 군인 등 공공직업인 경우는 지방대학생 어머니의 2.2%, 서울소재 대학생 어머니의 5.1%를 차지하였다.

위의 조사 결과를 종합 및 요약하면, 지방대학생의 전형적인 특성은 연소득 평균 약 5천만원 미만의 가구이면서, 양부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며, 아버지는 생산기술직이나 자영업, 어머니는 대부분이 경제적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이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다면 생산기술직이거나 자영업인 경우이다. 이러한 지방대학생의 특성은 부모가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연봉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서울소재 대학생의 경우가 비교 열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대학생들이 가족적, 경제적 뿐만 아니라 그 외 요소들에서 예를 들면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 서울소재 대학생에 비해 열위에 있는 않은지, 즉 전체적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4.2 지방대학생의 일상적 좌절: 서울소재 대학생과의 비교

다음 <Table 3>은 지방대학생의 일상적 좌절을 측정하기 위한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표이다. 지방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을 비교했을 때,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세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20개 항목 중 나머지 17개 항목 전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개 항목은 모두 경제적인 곤궁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그렇다’고 응답한 지방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 모두 세 번째 열의 퍼센티지 수치가 그들의 좌절을 나타낸다. 지방대학생의 45.7%가 돈 때문에 식사를 줄이거나 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서울소재 대학생은 39.9%가 이렇게 응답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까지 식사를 줄이거나 안한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돈 때문에 식사를 줄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31.0%를 제외한 나머지 약 69%가 지방대학생의 경우 돈 문제 때문에 식사에 제한이나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배고픔을 참으며 통학을 하는 지방대학생의 규모가 클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한다.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휴학이나 자퇴를 한 경험이 있다는 지방대학생은 전체의 15.9%이고 반면 서울소재 대학생은 4.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 때문에 현재 전공을 선택했다는 응답은 서

울소재 대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서울소재 대학생 중 29.2%가 취업 때문에 현재 전공을 선택했다고 응답했으며, 지방대학생의 경우는 21.0%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대생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여겨지는 서울소재 대학생들이 더욱 취업에 현실적이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더욱 준비 및 고민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구내식당 가격조차 부담된다는 응답은 다른 모든 조사항목에 비해서 지방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지방대학생의 경우는 36.4%가 구내식당 가격조차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반면 서울소재 대학생은 6.0%만이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만약 ‘보통’이라는 응답까지 부담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지방대학생은 전체의 67.7%(보통이다 31.3% + 그렇다 36.4%)가 구내식당 가격에 부담을 느낀 것이며, 서울소재 대학생은 전체의 30.5%(보통이다 24.5% + 그렇다 6.0%)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부모 소득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앞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에서, 지방대학생일수록 부모의 학력수준, 직업수준,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배제되고 무력한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지방대학생은 구내식당 가격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대학생은 학교 인근에 상업시설이 서울소재 대학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열

<Table 3> Frustration among local college students: compared to the frustration among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Local college students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Chi square
	No	so so	Yes	No	so so	Yes	
1) Insomnia, depression due to money problem	74.7	15.9	9.4	79.0	12.9	8.2	1.445
2) feel restriction to meeting friends or meeting lovers due to money problem	45.2	27.0	27.8	51.1	25.3	23.6	2.138
3) Reduce to eat or not eat due to money problem	31.0	23.3	45.7	42.1	18.0	39.9	7.809*
4) always look for job due to money problem	52.3	27.8	19.9	67.0	19.3	13.7	12.413**
5) leave of absence of school or dropout of school due to money problem (including siblings)	75.3	8.8	15.9	91.4	3.9	4.7	24.800***
6) go to military service due to money problem (including siblings)	79.0	8.2	12.8	85.8	6.9	7.3	5.134+
7) experience family economic crisis due to IMF	38.7	27.4	33.9	53.2	18.9	27.9	12.379**
8) select my major in order to get a job after graduation	47.4	31.5	21.0	49.8	21.0	29.2	9.662**
9) feel like cannot afford to meal price at school cafeteria	32.4	31.3	36.4	69.5	24.5	6.0	96.475***
10) experience family feud because of tuition fees or living expenses	64.2	19.3	16.5	77.3	13.7	9.0	11.782**

Note : + p<=0.10, * p<=0.05, ** p<=0.01, *** p<=0.001

(Table 3_continued) Frustration among local college students: compared to the frustration among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Local college students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Chi square
	No	so so	Yes	No	so so	Yes	
11) expecting living (money) difficulties after graduation	51.0	28.5	20.5	61.8	22.7	15.5	6.660*
12) think of founding company after graduation (since I will not able to get a job)	77.8	15.7	6.6	90.6	6.4	3.0	16.149***
13) feel mental health problems due to money	71.9	15.1	13.1	83.7	10.7	5.6	12.321**
14) feel physical health problems due to money	80.1	11.9	8.0	85.8	9.9	4.3	3.989
15) think that happiness is now deprived due to the preparation for getting a future job	9.7	22.2	68.1	15.5	16.7	67.8	5.985*
16) think the future of this situation is also difficult marriage and childbirth	43.5	28.1	28.4	69.1	14.6	16.3	37.156***
17) think that upgrading my class will be impossible given current educational attainment or current specification of me	20.5	29.3	50.3	51.9	19.7	28.3	63.365***
18) wealth is hereditary so, I will live the level of or under level of my parent's life	38.7	33.3	27.9	51.1	22.3	26.6	10.833**
19) think that the tuition is too high	0.9	5.7	93.5	8.6	15.5	76.0	40.256***
20) think the government is too passive to be confronting to youth unemployment problem	8.2	15.0	76.8	1.4	7.7	90.9	25.906***

Note : * p<=0.10, * p<=0.05, ** p<=0.01, *** p<=0.001

약할 수밖에 없어서, 구내식당에 대한 의존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학생들이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등록금 및 생활비로 가족간 불화를 겪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지방대학생의 1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반면 서울소재 대학생은 9.0%가 해당되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까지 포함한다면, 지방대학생의 35.8%(보통 19.3% + 그렇다 16.5%)가 돈 문제로 가족간 불화경험이 크거나 작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울소재 대학생은 그렇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 모두 지방대학생보다 낮게 나타나 총 22.7%(보통 13.7% + 그렇다 9.0%)가 가족간 불화경험을 크고 작게 겪은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생계가 막막하다는 응답은 지방대학생은 49%(보통 28.5% + 그렇다 20.5%) 서울소재 대학생은 38.2%(보통 22.7% + 그렇다 15.5%)로 나타났고 이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다만 다른 문항들보다, 상대적으로 서울소재 대학생들도 약 40% 정도가 생계가 막막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다수가 비록 서울소재 중상위권 대학이라 할지라도, 취업의 어려움과 실업의 두려움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돈문제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이상을 느끼는 비율은 비교적 다른 항목들보다, 보통과 그렇다는 응답이 적고, 이상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서울소재 대학생은 약 83-85%가량, 지방대생은 72-80% 가량 이상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가장 심각성이 적게 나타난 대표 항목이었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지방대학생은 서울소재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 좌절을 경험하는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돈 문제로 식사를 줄이거나 안한 경험, 구내식당마저 부담이 되는 경험, 돈문제로 가족불화를 겪은 경험, 그리고 졸업후 생계가 막막하다는 경험에서 좌절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조사항목들에서 특히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생들에 비해 좌절을 겪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년 및 대학생들을 위한 장기적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인한 좌절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기성세대들은 훗날 자신들의 은퇴시 후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세금 부담자인 현재 청년 및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짓눌려 일상적 좌절을 겪는 것을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음

을 지각해야 한다. 사실 청년들, 대학생들, 특히 지방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최대 피해자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학벌중시 풍조, 지방대학 배척 풍조, 서울 중심 풍조의 희생자들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 특히 지방대학생들을 위한 단기적 정책으로,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불안하고 암울한 청년을 위한, 특히 지역적으로 배제된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공표는 매우 의미있게 다가온다. 비록 지방대학생을 겨냥한 정책은 아니지만,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빠르면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청년배당을 시작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요한 특성은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조건없이 보편적으로 청년 모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별적 복지와는 다른 보편적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실현하는 복지에 해당한다. 청년 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한테 무조건적인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선별적 복지는 대상자 구분 및 선정에 행정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기본소득과 같은 청년배당은 그러한 행정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총 예산이 크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남시는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을 대략 6만-7만으로 잡고 있는데, 이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최소 6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따라서 초기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만 23살 모두에게만 지급해서 점차 대상을 늘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되어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되기도 한다는 목적이다. 청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러한 청년 수당 차원의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알로카시옹(현금수당)’이 그것인데, 프랑스 청년들은 구직과 직업교육 과정을 1년 동안 밟겠다고 약속하면, 월 452유로(약 57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호주도 16-24살 청년은 청년 수당을 받을 수 있다[12]. 물론 성남시가 곧 실현할 청년 수당은 지방대학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대학생이 지방 거주자일 것이므로, 오

히려 서울시가 아닌 성남시가 먼저 시작했다는 점은, 다수의 지방대학생이 포함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성남시보다 더 서울 지역과는 요원한 충청, 전라, 경상도 등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청년배당이 시작된다면 지방대학생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만약 지방대학 법인이나 경영자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지방대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은 자명하다. 만약 대학 차원에서 예를 들면 4학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지방대학의 취업률 향상 및 신입생 모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대학생에게 마지막 1년동안만 지급한다고 해도, 사실상 취준생(취업준비생)으로 생활하는 4학년 학생들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 좌절을 상당히 해결해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그 대학의 전체 취업률을 향상시킬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청년 입장에서, 특히 지방대학생 입장에서, 사회가 혹은 학교가 내아픔에 반응하고 있다, 정부가 나를 도와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청년수당은 모든 지자체 및 지방대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 서울시도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을 제안하고, 2016년부터 2020년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우선순위는 가구소득 하위 30%이거나 졸업 후 3개월 이상 미취업자) 최대 5천명에게 2-12개월간 월 50만원이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고려중이며, 청년허브가 마련한 초안으로 아직 확정은 아닌 정책이다. 서울시의 청년보장도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제공하려는 청년수당이자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이지만, 예산상 가구 소득분위 및 실업여부를 제한한 선별적인 것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1인당 수혜액을 낮추고 대상자를 늘려서 보다 기본소득 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서울보다 소외된 지방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13]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 1,116명을 비교 연구한 결과, 지방대학 출신이 첫 직장을 잡는데 더 어려움을 겪으며, 규모가 더 작은 직장에 취업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학력이 지방대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6]. 예를 들어 [14]은

수능점수 분석을 통해 서울지역으로 수능 우수 학생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은 수도권과 지방대학 양쪽 모두에 존재하며,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학생들의 학력과 역량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다[6]. 수도권대학 대 지방대학의 이분법적 범주로 지방대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우수한 지방대학생 다수의 능력과 자질, 인성을 보는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대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술과학부 차원의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의 확대실시, 공무원 시험의 지방대학 출신 할당제,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으로 청년배당과 같은 수당 중심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지방대학생도 현재의 차별과 배제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는 지방대학생이 언젠가 사회 전체에 가질 반감과 불신에 대해서 긴장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주요국가에서는 최근들어 청년층의 저항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15]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표본의 규모가 적고, 표집의 방법이 비확률적 표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일반화가 가능한 실증적 연구, 혹은 지방대학생 스스로가 연구대상자이자 참여자가 되어 그들의 배제, 차별 경험 및 좌절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얻는 질적연구 등이 후속연구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REFERENCES

- [1] H. I. Joo. "An Autoethnographic Study of the Provincial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in Jibangdae(provincial university)", Vol.13, pp.76-183. 2010.
- [2]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2004.
- [3] K. H. Lee. "Crisis of young generation of life and communication"
- [4] S. H. Woo and K. I. Park, "Economics of hope writted in the times of despair: 88manwon generation", Rediang.
- [5] M.R. Cho. "An Essay on the New Poverty", Economy and Society, Vol. 34. pp. 222-242. 1997.
- [6] S. E. Yang. "A Qualitative Study on Ego Identity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Vol. 23, No. 5, pp. 1-10. 2005.
- [7] A. C. Park.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and school life of a college student adaptation and individuated and self identity", Child Education, Vol. 10, No. 1, pp.161-173. 2001.
- [8] Y. H. Cho, M. H. Cho, Y. Shim, D. N. Kim, K. H. Lee, "Life and Culture University Comparativ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for culture: Focusing on commuting type among local university students, Korea Life Science, Vol. 9, No. 2, pp.153-176. 2000.
- [9] M. S. Kim. "Employment Strategy through recognizing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status", Province Development Research, Vol. 9, No. 1, pp. 435-463. 2004.
- [10] M. S. Jin. "Problem and Solution for youth unemployment: focusing on Daeju area", Korea Career Education Association, Vol. 16, No. 2, pp. 1-19. 2004.
- [11] S. R. Lee. "Local University students' work experience during the university yea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5, No. 1, pp. 1-38. 2004.
- [12] Y. R. Hwang. "Monthly basic income 10 man-won for all youth", Hangyerae 21, available from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0183.html.
- [13] J. S. Ryu, "Implementation Status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analysis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Industrial Labor Studies, Vol. 9, No. 1, pp. 171-196. 2005.
- [14] B. S. Lee,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roblems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Metropolitan Issue. Vol. 39, No. 423. pp. 55-65. 2004.
- [15] S. K. Lee, "Evaluation framework of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Prsentation at the Korea Industrial Development Foundation, 2009.

유 지 영(Yoo, Ji young)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화학
화 (이학사)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
학과 (문학석사)
- 2006년 10월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Ph.D.)
- 2008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방법론, 여성정책
- E-Mail : jiyoungyoo@nsu.ac.kr